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상국

강원도도 뿔 났다

강원도에 가면 당신도 자연이 된다. 1998년 개봉된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이란 영화는 그 제목부터가 달콤 섬뜩한 종래의 그것들에 비해 사뭇 낯설었다. 그러나 영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 제목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의 힘'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낙후와 불모의 땅, 무대접 푸대접으로 홀대받았다는 뿌리 깊은 피해의식에 빠져 있던 강원도 땅 강원도 사람들이 비로소 강원도의 힘을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 즈음부터였을 것이다.

강원도의 힘은 무엇일까. 영화 '강원도의 힘'은 결별의 상처를 가진 남녀가 각기 강원도 여행을 하면서 그네들이 지난날 나눴던 사랑의 애틋함을 다소 칙칙한 톤으로 회상하는 내용으로, 인간 내면의 심리 흐름이 강원도를 배경으로 적나라하게 그려졌다. 강원도의 자연을 통해서 피폐한 그네들의 가슴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라도 하듯.

자연은 인간 감성의 근원이다. 자연의 힘은 남들한테 뒤질세라 정신없이 내달리며 살던 대도시 사람들이 사시사철 주말만 되면 목숨을 걸고 도심을 탈출하는 그 차량행렬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까지 잊고 산 질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는 자연 앞에 서는 순간 숨김없이 드러난다. 오솔길에 들면 저절로 노래를 부르고 자연예찬의 삼행시를 짓는다. 아이들은 환호하고, 어떤 이들은 자연의 신비를 스케치북에 옮기는 등 그 감동이 거침없다.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아티스트 본능의 굼틀거림이다. 자연 속에서의 이러한 문화충동이야말로 남들의 사는 모습을 그대로 흉내 내기에 바빴던 도시적 삶의 각성이며 자기가 꿈꾸고 있는 자기 본래의 모습을 비로소 찾았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마음의 여유를 찾은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거대 괴물도시 예찬이 아닌 충청도의 힘,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산골마을의 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얼마 전부터 강원도 사람들은 강원도의 새로운 힘으로 반세기 넘게 휴식을 한 DMZ(비무장지대)를 내세우고 있다. 분단 고통과 그 상흔의 상징인 DMZ가 버려진 땅에서 생명의 신비를 담은, 생태 자원의 보고로, 남북 화해 평화 통일의 전진 기지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사람들은 대도시 사람들의 생명의 원천인 상수원, 그 물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갖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듯 반세기 이상 살아 숨 쉬고 있는 공포의 그 지뢰밭 속에서 살아왔다. 함부로 발 들여 놓을 수 없는 그 무수한 선들에 의해 삶의 불편을 겪어온 접경지역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애증이 서서히 DMZ에 대한 자긍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8월 14일 강원도 고성 명호리 민통선 안쪽에 비무장지대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DMZ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9월 18일에는 인제군 서화면에 DMZ 평화생명동산이 비무장지대 가치의 전국화, 세계화를 향해 문을 연다.

이제 DMZ는 강원도의 가장 매력 있는 관광 명소로서 떠오르고 있다. 여전히 긴장의 공간이지만 그만큼 환상과 동경의 땅으로, 축복받지 못한 그 땅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기회의 땅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로 지금 강원도 사람들은 많이 바쁘다.

그런데 요즘 강원도 땅, 강원도 사람들이 몹시 화가 났다.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무산됐고 지지부진한 SOC확충,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불투명 등 주요 현안이 실패하거나 답보상태다. 이에 도민들은 첨복단지 재선정 촉구 상경집회를 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조선시대 윤행임이 '강원도 사람은 바위 아래에 앉아 있는 부처님 격으로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자기 할 일 해나간다.'라고 적은 그 암하노불들이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선 것이다.

모든 일을 정치판 그 꼼수로 풀어가는 일에 능한 거시기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무뚝뚝한 강원도 감자바위들이 왜 뿔 났는지.

〈소설가·김유정문학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정부,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의지 있나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치르기 위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애초 공사기간보다 1~2년씩 지연된다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여수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운운하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일 여수엑스포 관련 주요 SOC 사업의 완공시기가 예산 부족으로 1~2년씩 지연되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에 필요한 SOC 예산은 1조6천283억원인데 정부의 예산편성안을 보면 절반 정도인 8천902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광양, 목포~광양 고속도로와 여수~순천 국도확포장, 전북 익산~여수 간 전라선 철도사업 등 주요 교통망 구축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흥 영남~여수 돌산 적금, 돌산~화태 등 2곳의 연도교 공사는 엑스포가 끝난 2013년으로 늦춰진다.

여수엑스포는 국책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 전 여수를 방문해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여수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정부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는 성공개최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는 SOC 사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문명 비평가인 기소르망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여수엑스포가 반도(半島)국가 정체성의 반쪽, 해양을 되찾는 '88서울올림픽'이 되길 빈다. 하지만, 한국민의 무관심과 계획의 모호함 때문에 여수엑스포가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적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여수엑스포는 이제 1000일도 남지 않았다. 정부가 진정 성공개최를 원한다면 엑스포 관련 SOC 예산지원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지방·서민 고통 심화된 경제위기 1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제위기가 1년을 맞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화 유동성 위기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던 한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한 것은 한국경제의 강한 회복력을 인정한 것이다.

일부 경제지표는 1년 전 수준을 회복했다.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3%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이 확실하다는 민간연구소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정부 측 전망이다. 지난 1월 -25.5%까지 추락했던 광공업 생산 증가율도 10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방 경기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다. 광주·전남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실물 경기는 바닥을 맴돌고 있다.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소외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대기업이 적은 광주지역 청년 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서민과 영세사업자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비해 불황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산층 붕괴와 계층 간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희망근로사업 등 긴급 일자리 구호에 나섰으나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지표상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은 벗어났으나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 역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지방경기를 살리고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정종학

라식 수술 후 눈관리 이렇게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시력교정 수술의 대명사가 돼버린 '라식'이 이 세상에 등장한 지가 20년이 넘었다. 라식수술로 안경에서 해방된 사람도 지구상에서도 수백만 명이 넘었다. 라식 등의 근시교정 수술도 그 시작 단계인 초기보다 수술의 기술적 면으로 보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그 정확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배가돼 안전도도 높아졌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1980년대의 시술 초기의 환자들은 안경 벗고 0.5이상만 나와도 쾌재를 불렀었는데 이제는 의사나 환자 모두 1.0이상이 나와야 수술을 성공이라고 할 만큼 만족의 수준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수술 후 시력이 1.0만 나오면 수술의 모든 것이 다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시력이 1.0만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한다. 즉 수술후의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다 보니 수술 직후에는 시력이 1.0이 나왔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시력이 떨어져서 오는 분도 간혹 생기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경우 라식수술 후에는 눈에 안구건조증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해서 난시가 생기게 돼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시력이 0.5이하로 저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라식수술은 각막을 한꺼풀 벗기고 레이저를 조사하고 다시 덮는 과정으로 수술이 완성되는데 한꺼풀 벗겼던 부분이 각막에 얼마나 고르게 잘 붓는가에 따라서 시력이 언제까지 잘 유지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 피부를 다친 후에 한꺼풀 벗겨지게 되면 그 부위가 말라 비틀어지며 떨어지는 것을 대부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이것은 벗겨진 피부로는 피부 아래쪽에서부터의 수분 공급이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것이 라식수술을 하면 눈에 안구건조증이 오는 원인과 같다.

그러나 눈에는 워낙 수분의 공급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각막이 말라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건조증은 경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유지는 수술 후 수개월 동안 각막이 붙어나가면서 서서히 영향을 주는데 환자나 안과에 따라서는 이 중요한 과정을 소홀히 하고 라식수술의 편리함만을 강조해 수술 후 안과에서의 진찰과 안약 사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라식수술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 생업이나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곤 한다.

수술 후에 유난히 눈이 부시고 피곤감이 잘 오게 되고 이물감이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안구건조증이다.

결론적으로 수술 후에는 안구건조증이 대부분 오게 되고 수술 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게 되는데 이것을 몇 개월 동안 잘 관리를 하면 근시의 재발이나 안구건조증이 최소화되고 평생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광주안과 원장〉

기 고

이순임

쾌적한 학교 환경속에 실력도 쑥쑥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교육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전국의 600여 개 중·고등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도입해 시범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의 질이 이렇듯 선진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교육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해결과제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집 외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그 어느 곳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관리돼야 한다. 다행히 관련법 개정으로 요즘 새로 지은 학교건물은 지을 때부터 집단생활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세먼지, 냄새, 학교운동장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황사 등과 같이 교실내 공기질을 안 좋게 하는 주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이나 정화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학교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냉·난방시설이 없어 찜통교실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여름을 나고 추위에 몸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교실에서 지내는 아이들, 낡고 높낮이가 되지 않아 체형에 맞지 않은 책걸상에 앉아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었다.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버텨내야 했다.

지난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냉·난방시설을 모든 학교에 설치 완료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광주는 언제나 냉·난방시설이 구비될지 걱정이 됐었다.

다행히 광주시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모든 학교에 냉·난방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환영할 일이다.

얼마 전 아이의 진학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고 나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변해도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고 청결한 급식실, 냄새 나고 불편해 사용하기가 두려웠던 학교 화장실에서는 음악이 흘렀다. 노후 책걸상도 조절식 책걸상으로 교체돼 있었다.

한편으로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냄새, 미세먼지 등으로 교실의 공기가 나빠질 것을 걱정했었는데 2학기 시작 전에 물칠판과 공기청정기도 설치하는 등 친환경 교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우리 광주교육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언론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보다 약 11% 이상의 학력 차이가 난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다. 이렇듯 교육의 질과 환경의 변화로 우리 광주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진정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앞으로도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갖고 근무하고 싶은 학교, 학생들은 머무르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학부모〉

無等鼓

출구전략

글로벌 경제가 신용경색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작년 이맘때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한 이후 1년 만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터널의 출구 앞에서 고민 중이다. 중앙은행들은 이제 유동성 회수를 위한 '출구전략(Exit Strategy)'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출구전략은 군사용어였다. 목적을 완수한 군의 퇴각 작전 플랜이다. 미군이 베트남 전쟁 당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빨리 철수하는데 적용했다고 한다.

이 말이 경제용어로 둔갑해 등장한 것은 올 봄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였다. G20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 시초다.

출구전략이 필요한 것은 세계 여러 나라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금리도 대폭인하는 등 '비상조치'를 썼기 때문이다. 우리도 40조원의 국고를 쏟아붓고,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렸다.

평시에 돈을 이렇게 풀면 난리가 난다. 물가가 폭등하고 자산 거품이 생기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된다. 경기 부양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면 되돌려 놓는 것이 정상이다.

빨라서도 늦어서도 안 된다. 너무 빨리 돈줄을 조이면 회생중인 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늦으면 인플레이션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는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출구전략을 쓸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해온 한국은행으로선 부담스런 일이다. 경기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발언은 '압박'이 될 수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와 사사건건 대립했던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의 컴백으로 제 2기 '리만브러더스(이명박 대통령+강만수 경제특보)' 체제가 가동한 것도 껄끄럽다.

이들의 고환율 정책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키코 공포'에 떨었던게 엊그제 같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

간단한 자가치료도 병원행… 건강보험료만 올린다

며칠 전 화재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직원이 자신의 소개를 한 뒤 뭔가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았다.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듣던 보험상품 광고 중 가장 솔깃했는데 그 내용을 듣던 중 기가 막힌 안내를 받았다.

"일하다 허리가 삐끗하면 약국에서 파스 사다 붙이시죠?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시면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보상해드려요." 어찌 보면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사소한 질환으로 일일이 병원을 찾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감당할까.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이 비용을 충당하려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개인에게 있어 중하지 않은 병이야 없겠지만 간단한 자가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런 발병으로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건강보험이 몇몇 사람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망가질까 우려된다.

▲이재령·광주시 북구 생용동

시끄러운 길거리 홍보 자제했으면

길거리를 지나 가다 보면 일부 상점들이 출력이 높은 스피커를 통해 하루 종일 음악과 선정용 문구를 내보내 짜증을 더해주고 있다. 홍보도우미들이 현란한 춤과 마이크를 잡고 큰소리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긴 하나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나가면서 옆 사람과 대화하려면 큰소리로 말해야하고 귀가 따가워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옷차림과 큰 음악소리로 운전자와 행인에게는 길거리 마케팅을 목적으로 펼친다지만 정작 피해자는 소비자인 것이다.

이런 행동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상점 주인들의 행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행인들과 주변의 다른 상점들을 생각해 스피커 볼륨을 조절해 주었으면 한다.

▲노광용·광주시 북구 용봉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